

##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소비 충격 분석 및 전망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Tel: 044-414-1048)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Tel: 044-414-1278)  
**김주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ohye@kiep.go.kr, Tel: 044-414-1283)  
**최지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wchoi@kiep.go.kr, Tel: 044-414-1290)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hchoi@kiep.go.kr, Tel: 044-414-1098)

## 차 례

1. 서론
2.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충격과 재개 동향
3. 중국 내 소비 충격 및 인터넷 소비 전망
4. 중국정부의 대응
5. 시사점

## 주요 내용

- ▶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생산 및 소비 충격이 발생초기의 예측은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기 생산 재개, 소비촉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1~2월 전년동기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자동차 제조·교통 운송장비 제조·기계 비 제조 부문과 중국 내 외자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음.
  - 중국 내 숙박, 여행사, 면세점, 항공, 철도 등 관광과 관련된 업종 역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 2월 중순부터 중국의 주요 공업 지역인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재개되고 있으며, 주요 도시의 사회 활동 수준도 3월 초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상하이, 광저우(광둥성)의 경우 현재의 회복세를 유지할 경우 3월 말~4월 초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베이징의 경우 약 4~7주(4월 중순~5월 중순)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 ▶ 중국 내 온라인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1~2월 소매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감소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비즈니스 모델, 비대면 배달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소비가 증가하였지만, 자동차, 핸드폰 등 주요 내구재 소비와 여행 및 외출 감소로 인한 서비스업 소비 둔화가 두드러짐.
- ▶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글로벌의 수요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중국의 생산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일본 등 중국의 주요 수출국에도 확산 되면서 금년 중국의 수출 전망은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
- ▶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 및 대중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경영난 가중에 따른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
  - 중국의 내부 충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하여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국내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을 위한 중국정부와의 정책 공조와 함께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중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활용하여 국내에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창출하고, 양국간의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통관 간소화, 제도 개선 등의 정책 수립이 필요함.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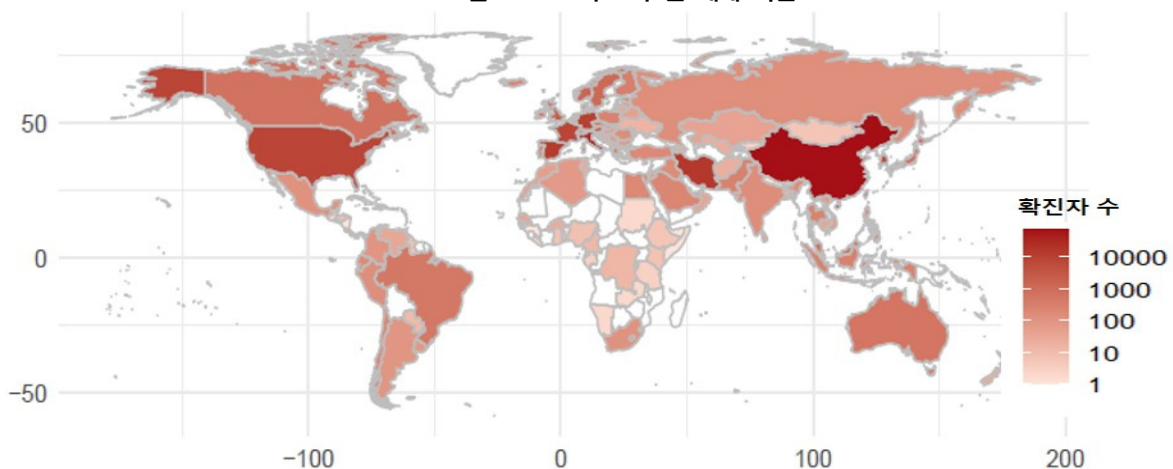
■ 3월 24일 기준으로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8만 1,21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 내 확산은 소강 상태임.

-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4,287명(중증환자 1,399명)이며, 치료 후 완치된 환자는 총 7만 3,650명, 사망자는 3,281명을 기록하고 있음(사망률 약 4.1%).
- 치료 중인 환자 중 3,794명이 우한시민이며, 아직 우한시를 중심으로 한 후베이성 내 이동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고, 조업 재개 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느림
- 하지만 현재 후베이성 내에서도 확산은 소강 상태이며, 후베이성으로 파견되었던 다른 지역의 의료진들도 복귀하고 있음.<sup>1)</sup>
- 후베이성 내 다른 지역들은 3월 25일부터 봉쇄가 해제되었고, 우한시의 경우 4월 8일부터 봉쇄가 해제 됨.<sup>2)</sup>

■ 중국 내 대규모 확산이 멈추면서 중국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안정, 기업지원, 소비촉진 정책 추진 등에 매진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충격은 크게 생산 및 소비의 충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한국경제 또한 영향을 받고 있음(그림 2 참고).
- 본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1~2월 실물경제(생산과 소비)의 영향과 중국정부의 대응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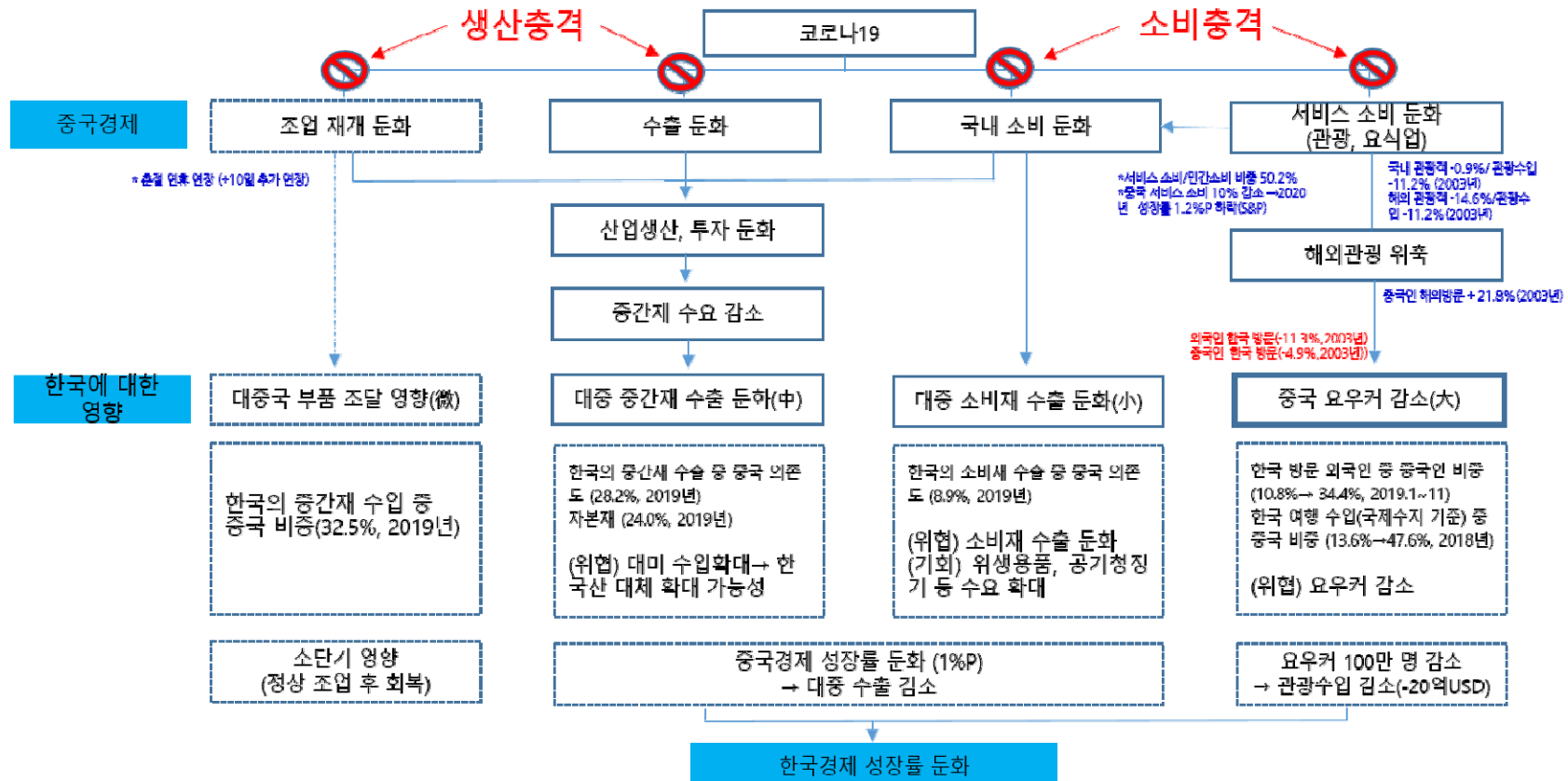
주: 그림의 붉은 색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의미함.

자료: nCov2019 for studying COVID-19 coronavirus outbreak에서 제공한 데이터(검색일: 2020. 3.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업.

1) 『中国青年网』(2020. 3. 21), 「白衣战士都是好样的! 多支各省支援湖北医疗队返回家乡」.

2) 新华社(2020.3.24), 湖北: 武汉市4月8日起解除离汉离鄂通道管控措施 武汉市以外地区3月25日起解除离鄂通道管控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한국경제의 파급효과



※ 방한 중국인의 1인당 지출: 1,887달러/인, 개인 여행객의 평균 지출액은 1,916달러(쇼핑 1,263달러), 단체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1,317달러(쇼핑 859 달러)  
 ※ 방한 중국인: (2003년) 51.3만 명 → (2016년) 806.8만 명 → (2017년) 416.9만 명 → (2018년) 479.0만명 → (2019.1~11) 551.4만 명(+26.9%)  
 ※ 한국 여행 수입(국제수지 기준) 중 중국 비중 (13.6%, 2013년 → 47.6%, 2018년)  
 ※ 소비의 성장 기여율 57.8%(기여도 3.5%, 2019년), 중국 민간소비/GDP 비중(2018년) 39.4%, 서비스 소비/민간소비 비중 50.2%(2019년)  
 ※ 중국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2003년 → 2019년): GDP 4.27% → 15.84%, 교역 4.35% → 10.19%, 세계경제 성장 기여율 12.46% → 27.44%로 각각 증가

자료: 최원석 외(20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4, 그림 21을 바탕으로 저자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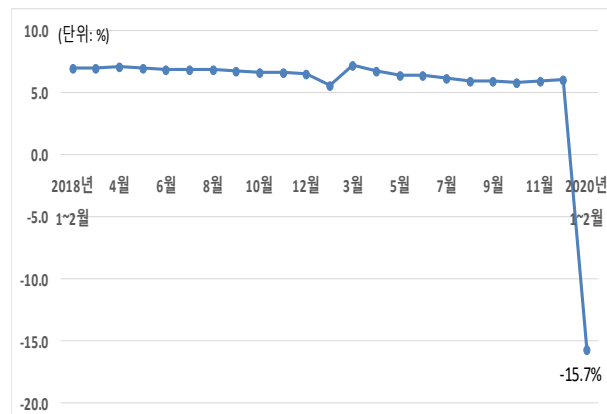
## 2.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충격과 재개 동향

### 가. 조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 충격

■ 중국통계국의 3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1~2월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교통 운송장비 제조·기계설비 제조 부문이, 기업 분류상으로는 외자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음.<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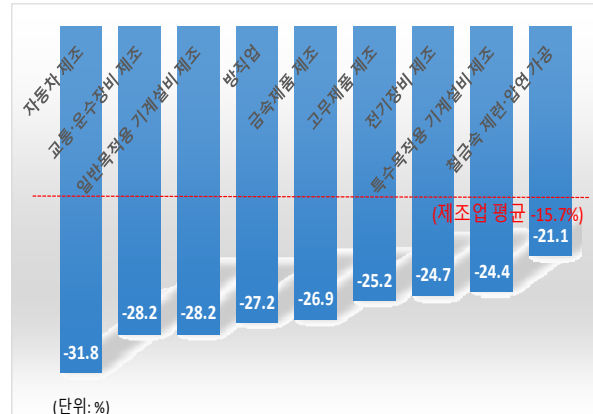
- 중국 국무원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전 지역의 춘절 연휴를 기존의 1월 30일에서 2월 2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상하이·광둥 등 여러 지방정부는 추가적으로 2월 9일까지 연장함.<sup>4)</sup>
- 2020년 1~2월 '일정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3.5%를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광업과 전력·가스·수도생산 공급업을 제외한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15.7%를 기록함.<sup>5)</sup>
- 대다수 제조업 세부 업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자동차 제조, 교통 운송장비 제조, 기계설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각각 -31.8%, -28.2%, -28.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기업 분류상 홍콩·대만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21.4%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국유기업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음(-7.9%).
- 지역별로 제조업이 밀집된 동부지역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16.9%), 그다음으로 후베이성이 속한 중부지역이 16.7% 감소하였음.

그림 3.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전년 1~2월의 누계) 실질성장률임.  
자료: 国家统计局.

그림 4.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 하위 10대 업종



주: 전년동기대비(전년 1~2월의 누계) 실질성장률임.  
자료: 国家统计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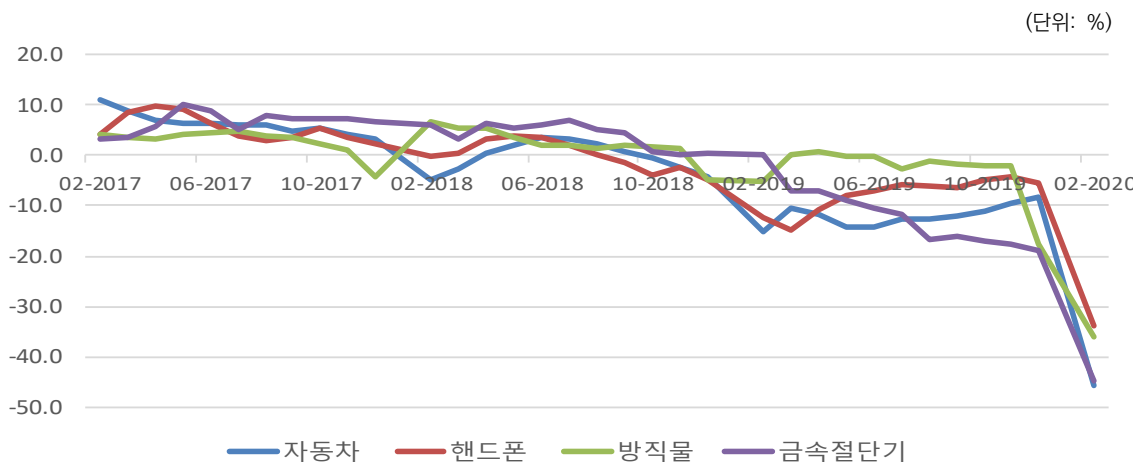
3) 본문 중 각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전년동기대비(전년 1~2월의 누계) 실질증가율을 의미함.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참고.

5) 본문 중 '일정규모 이상기업'은 연간 영업수입이 2,0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을 의미함. 공업은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생산 공급업을 포함함.

- **조업 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공산품 생산량이 급감하였는데, 특히 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핸드폰, 금속절단기, 방직물 등의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30~45% 감소하였음.**
  - 중국정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집약적, 상호의존적 공급사슬을 특징으로 하는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20년 2월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79.8% 감소하여 2012년 1월 이후 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음(2020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45.8%).
  - 2020년 1~2월 누계량을 기준으로 중국 핸드폰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3.8%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애플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음.
  - 2019년 애플사의 200개 핵심 협력사 중 중국 제조사는 전체의 20%를 차지하며(41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애플의 일부 지역 판매점에서 제품 공급부족 문제를 겪음.<sup>6)</sup>

그림 5. 최근 3년간 중국의 주요 공산품 생산량 추이(전년 1~2월 대비 증감률)



자료: CEIC DB(검색일: 2020. 3. 16).

- **2020년 2월 조업 중단과 영업장 폐쇄로 인해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약 1%p 상승하여 6.2%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서비스업 부문의 경기 악화와 기업의 채용 부진에 기인함.<sup>7)</sup>**
  - 업종별로 특히 도소매업, 숙박업, 외식업, 문화서비스 부문의 매출 급감에 따른 해고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함.
  - 이 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이 채용을 중단되거나 연기하면서 취업 기회가 더욱 축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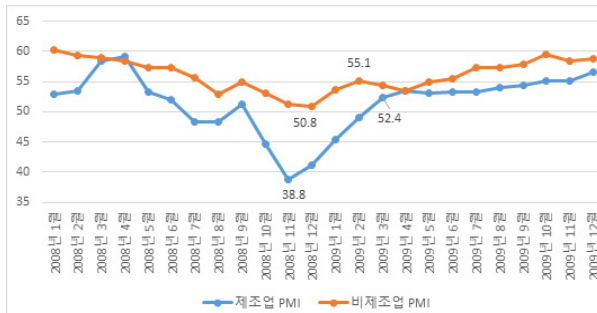
6) 「股价暴跌销量滑铁卢 全球供应链紧张」(2020. 3. 17), <http://www.chynews.cn/sjj/2020/0317/8480.html>.

7) 중국정부는 2018년부터 도시 전체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해 표본 조사한 '조사실업률'과 도시 비농업호적(非农户籍) 인구 중 16세 이상부터 퇴직연령 이하 인구가 취업지원센터에 실업으로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등록실업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조사실업률 기준임. 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z/cjwjtjd/201308/t20130829\\_74322.html](http://www.stats.gov.cn/tjsz/cjwjtjd/201308/t20130829_74322.html); 张毅: 疫情冲击下失业率上升统筹政策实施将带动就业形势改善.

■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38.8) 때보다 낮은 35.7을 기록하였고, 서비스업의 PMI는 제조업 PMI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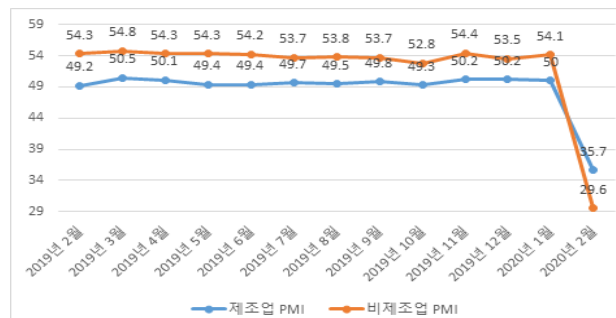
- 2020년 2월 서비스업 PMI는 29.6으로 하락하여 제조업 PMI보다 6.1 낮은 수치를 기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큰 영향을 받았으나, 코로나19 사태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큰 충격을 받음.

그림 6. 2008년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7. 2020년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 중국 중소기업의 약 70%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생산주문 감소 등 매출 급감에 기인함.

- 지난 2월에 진행된 중국 중소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기업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차질보다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주문 감소 및 제품 판로 상실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sup>8)</sup>

그림 8.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기업의 피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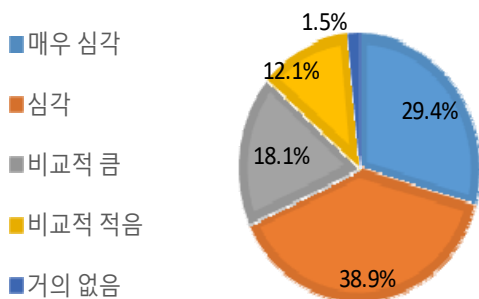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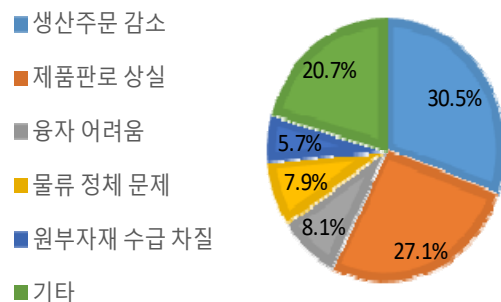


그림 9. 중국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주: 2020년 2월 중국 중소기업협회가 중국 내 6,4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界面新闻(2020. 3. 2), 「中小企业协会调查报告: 疫情中的困境与自救」.

8) 界面新闻(2020. 3. 2), 「中小企业协会调查报告: 疫情中的困境与自救」.

## 나. 조업 재개 동향

### 1) 중국 지역별·산업별 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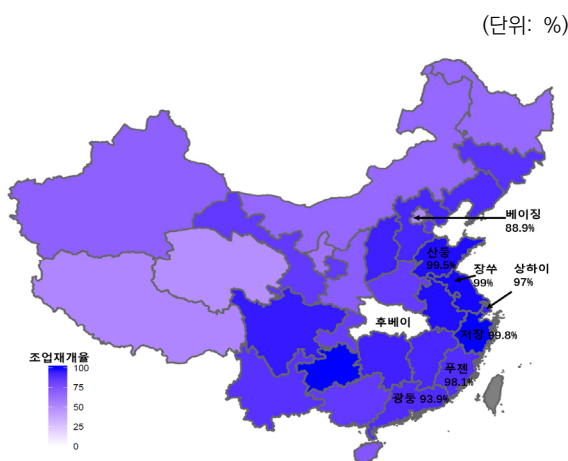
■ 2월 중순부터 중국 내 조업이 재개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조업 재개율은 3월 16일 기준으로 중국 평균 91.7%를 기록함(그림 10 참고).

- 지방정부에서 발표하는 조업 재개율은 ‘일정규모 이상기업’ 중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후 생산을 재개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 하지만 이 지표는 각 기업의 생산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는지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 중국의 각 기업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된 주요 제조업의 가동률은 조업 재개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노동자 복귀율도 낮아 아직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없음(표 1 참고).

- 노동자 복귀율은 2019년에 해당 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 수와 2020년 춘절 연휴 후 복귀한 노동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조선업의 경우 조업 재개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3월 23일 기준으로 후베이성 내 ‘일정규모 이상기업’의 조업 재개율이 8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우한시를 비롯해 후베이성의 확진자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보다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됨.9)

그림 10. 중국의 지역별 조업 재개율



주: 지역별 재개 현황은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조업 재개율을 토대로 작성, 이 지표는 ‘일정규모 이상기업’ 중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후 생산을 재개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지역별 재개 현황은 IHS market(2020. 3. 16), 산업별 재개 현황은 IHS market(2020. 3. 2)을 토대로 작성.

표 1. 업종별 상위 500대 기업의 조업 재개 및 업무 복귀 현황

(단위: %)

산업	조업 재개율	노동자 복귀율	가동률
조선업	73.3	36.7	36.7
통신장비 제조업	74.0	76.0	58.0
산업용 기계 제조업	72.0	52.0	52.0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	65.0	48.0	44.5
반도체, 집적회로, 패널 제조업	60.0	55.0	60.0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59.3	53.6	36.4
전자 와이어 제조업	48.6	54.3	42.9
풍력, 태양광 장비 제조업	66.7	63.3	63.3

9) 『中华网新闻』(2020. 3. 23), 「湖北: 稳步推进复工复产」.



## 2) 외출인구 및 교통혼잡 지표를 통한 분석

■ [분석방법] 바이두 지도에서 제공하는 도시별 외출인구지표, 교통혼잡지표 등의 자료 통해 춘절 연휴 이후 중국 내 사회활동이 전년수준대비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분석

- 2020년의 외출인구지표와 2019년의 외출인구지표의 비율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외출수준을 분석, 만약 2020년의 외출인구지표가 전년과 같거나 높다면(100% 이상), 외출인구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
  - 따라서 외출 수준의 추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사회활동의 위축 정도, 회복 추세를 추정 가능
  -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상하이시, 베이징시(직할시)를 제외한 지역 분석에서 각 지역의 성도(省都) 내 외출 수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외출 수준을 분석함.

■ [외출 수준] 2020년 정상조업이 시작된 첫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의 외출인구지표를 전년과 비교하여 2020년의 외출 수준을 계산함.

- 2019년의 경우 2월 11일에 조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연휴 연장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2월 10일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함.
  - 따라서 2019년의 경우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가 정상조업을 시작한 첫째 주에 해당하며, 2020년의 경우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가 정상조업을 시작한 첫째 주임.

■ [주요 결과] [그림 11]은 중국 주요 지역의 성도(省都) 및 직할시(베이징, 상하이)의 전년과 금년의 정상조업을 시작한 첫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의 외출 수준 회복 추이를 보여줌.

- 3월 16일 기준 베이징의 경우 외출 수준이 전년 같은 기간의 68.77%를 기록하였으며, 회복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느린 편임.
-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 중심지로, 시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3월 중순에도 계속 유지됨에 따라서 회복이 더딘 것으로 판단됨.

■ 베이징을 제외한 동부연안 지역의 회복세가 빠르며, 지난시(산둥성), 난징시(장쑤성)의 조업 재개 후 다섯째 주의 평일 외출 수준 평균은 전년의 95.61%, 93.89%를 각각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표 2 참고).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점도 한 가지 요인으로 보임.
  - 이번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하이나 광저우(광둥성), 푸저우(푸젠성)의 경우 다섯째 주의 평일 외출 수준이 각각 83.57%, 78.9%, 85.07%를 기록함.

표 2. 각 주요 도시 내 외출 수준

(단위: %)

지역	조업 이후 외출 수준 평균(월~금요일 평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베이징	53.87	51.26	50.56	56.03	61.2
상하이	57.19	54.98	65.08	75.74	83.6
광저우(광둥성)	52.59	51.11	60.23	71.93	78.9
항저우(저장성)	32.26	49.85	66.37	85.13	92.4
난징(장쑤성)	29.16	49.75	67.81	84.51	93.9
자닝(산둥성)	61.4	69.51	72.76	89.26	95.6
푸저우(푸젠성)	48.42	65.4	75.5	80.51	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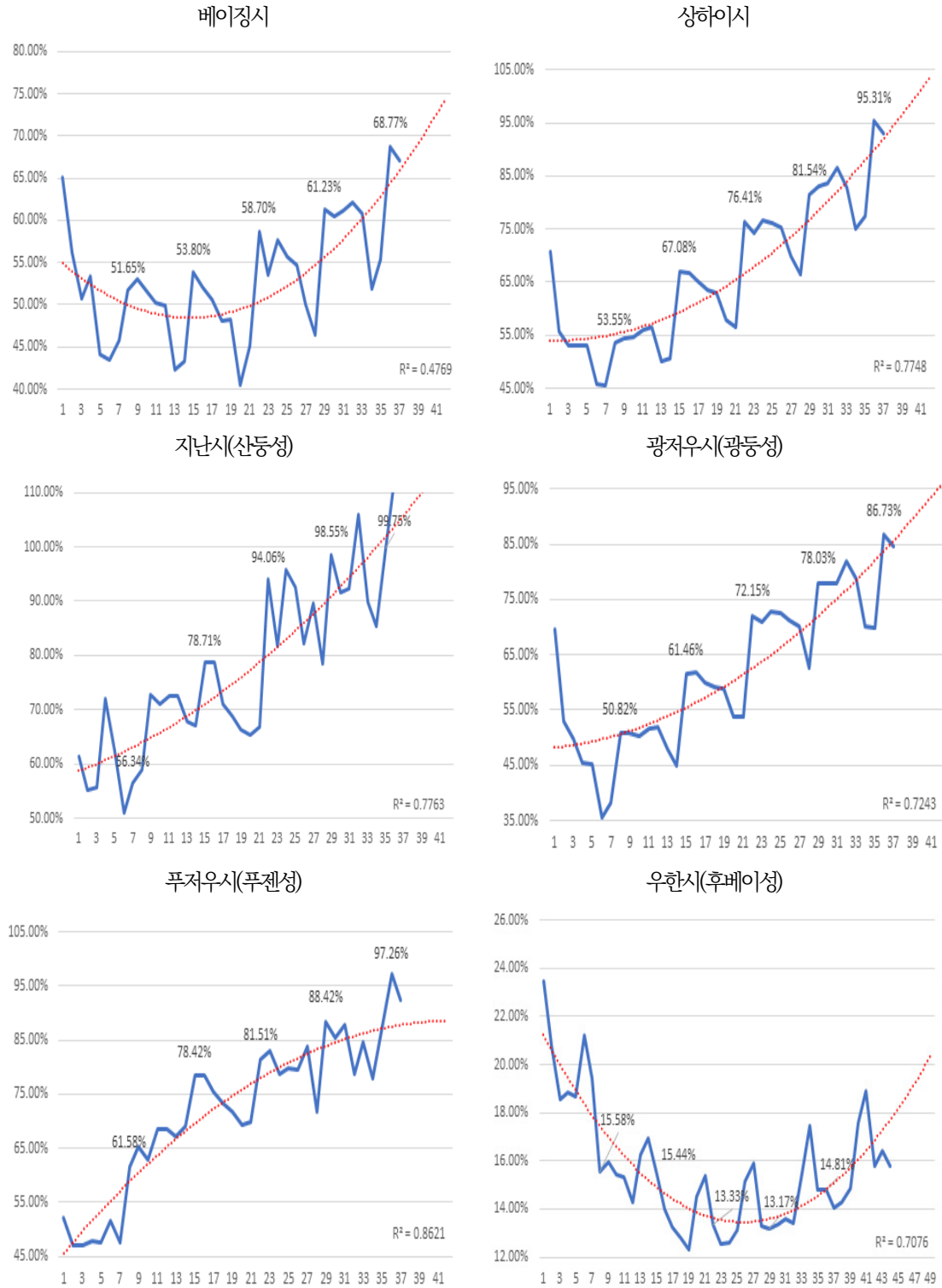
주: 2019년 외출지표는 당시 춘절 공식 연휴가 끝나고 조업 재개가 시작된 2월 11일 이후의 외출지표, 2020년도 외출지표는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한 춘절 연휴 연장기간 이후 조업을 시작한 2월 10일 이후를 반영하여 비교; 베이징, 상하이 같은 직할시를 제외하고 각 성의 성도 내 활동지수를 비교함.

자료: 바이두 지도, <http://qianxi.baidu.com/?from=shoubai&city=0>(검색일: 2020. 3. 20).

■ 각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3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도시 내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여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 3월 11일부터 일일 교통혼잡지표와 해당 지역의 전년 평균 교통혼잡지표의 비율을 통해서 각 지역의 최근 교통혼잡 수준을 분석함.
  - 베이징의 교통혼잡 수준은 전년의 약 70%를 기록하며 다른 지역의 주요 도시보다는 교통량의 증가 속도가 낮은 편이며, 항저우의 경우 교통량이 이미 전년 평균을 넘어섬.
  - 그 밖의 주요 도시 대부분은 전년대비 90% 수준이며, 지금의 추세로 보아 3월 넷째 주(23~29일)에는 전년 평균과 유사한 교통량을 보일 전망

그림 11. 중국 각 주요 도시의 외출 수준 회복 추이



주: 각 지역의 외출 수준은 2020년의 전년대비 외출인구지표의 비율을 의미; 조업 재개 시작일을 첫 번째 일로 설정하였고, 가로축의 1~7일은 조업재개가 시작된 후 첫 번째 주를 의미함; R square 값은 추세선을 2차 다항식으로 가정했을 때의 적합값(Fitted Value)을 의미함.

자료: 바이두 지도, <http://qianxi.baidu.com/?from=shoubai&city=0>(검색일: 2020. 3. 20).

표 3. 중국 주요 도시 내 교통혼잡지표

지역	교통혼잡지표								2019년	혼잡 수준
	3/11	3/12	3/13	3/14	3/15	3/16	3/17	평균		
베이징	1.48	1.44	1.47	1.03	1.03	1.79	1.62	1.41	2.04	69.1
상하이	1.65	1.73	1.75	1.04	1.03	1.97	1.75	1.56	1.74	89.7
광저우시 (광둥성)	1.78	1.65	1.95	1.19	1.12	1.86	1.79	1.62	1.74	93.1
항저우시 (저장성)	1.92	1.87	2.03	1.12	1.12	2.16	2.02	1.75	1.63	107.3
난징시 (장쑤성)	1.62	1.58	1.71	1.13	1.10	1.82	1.69	1.52	1.71	88.9
지난시 (산둥성)	1.51	1.47	1.53	1.14	1.14	1.76	1.6	1.45	1.68	86.3
푸저우 (푸젠성)	1.35	1.6	1.55	1.14	1.14	1.6	1.6	1.43	1.61	88.8

주: 일일 교통혼잡지표는 출퇴근 시간(오전 7시 - 9시, 오후 5시 - 7시) 동안 순행 운전시간/실제 운전시간, 바이두 지도 데이터, 외출 인구 등을 통해 구하며, 지표가 높을수록 교통이 혼잡함을 의미함; 2019년은 한 해 평균을 의미하며, 평균은 바이두 (2020), 「2019年度中国城市交通报告」를 참고; 혼잡 수준은 2020년 교통혼잡지표 평균의 2019년 평균 대비 비율 (표 안의 '평균' 열/2019년 열의 비율)을 통해 구함.

자료: 바이두 지도, <http://jiaotong.baidu.com/top/>(검색일: 2020. 3. 20).

### 3) 조업 재개 전망

■ 지난해와 금년의 외출지표, 교통혼잡지표 비교를 통해 각 지역의 사회활동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소요 시간이 다름을 알 수 있음.

- 베이징의 경우 연휴가 끝난 셋째 주(2월 넷째 주)부터 외출 수준이 매주 5~7%p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전년 수준(100%)까지 도달하는 데 약 5~8주(4월 중순~5월 중순) 걸릴 것으로 예상
  - 아직 중앙 양회 개최시기에 대한 발표는 없으나, 양회 개최를 위해서라도 베이징시의 조업 재개 둔화가 장기 화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하며, 만약 해외에서 역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확산이 다시 발생할 경우 베이징에서의 조업 활동 회복이 더 느려질 가능성도 존재함.
- 상하이, 광둥성의 경우 현재의 회복 추세를 유지할 경우 3월 말~4월 초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회복이 빠른 산둥성, 장쑤성의 경우 적어도 3월 말에는 전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단 이러한 분석이 △ 중국 내 모든 도시가 아닌 주요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고 △ 일일 외출인구, 교통혼잡 수준이 생산활동 인구만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생산 재개가 전년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표 4. 주요 지역별 조업 재개 전망

지역	외출 수준 (%)	교통혼잡 수준(%)	시나리오별 조업 재개 회복		
			현 추세보다 빨라짐	현 추세 유지	현 추세 둔화
베이징	61.2	69.1	4월 중순	5월 초	5월 중순
연안 지역	상하이	83.6	3월 말	4월 초	4월 중순
	광둥성	78.9			
	푸젠성	85.1	3월 셋째 주	3월 말	4월 초
	산둥성	95.6			
	저장성	92.4			
장쑤성	93.9	88.9			

주: 현 추세 유지는 [표 2]의 결과를 통해서 도출, 현 추세 둔화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현재의 추세가 5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분석됨; 외출 수준과 교통혼잡 수준(%)은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금년의 인구이동 수준을 반영하며, 100 이상은 전년보다 금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외출 수준은 바이두 지도, <http://qianxi.baidu.com/?from=shoubai&city=0>(검색일: 2020. 3. 20); 교통혼잡 수준은 바이두 지도, <http://jiaotong.baidu.com/top/>(검색일: 2020. 3. 20).

### 3. 중국 내 소비 충격 및 인터넷 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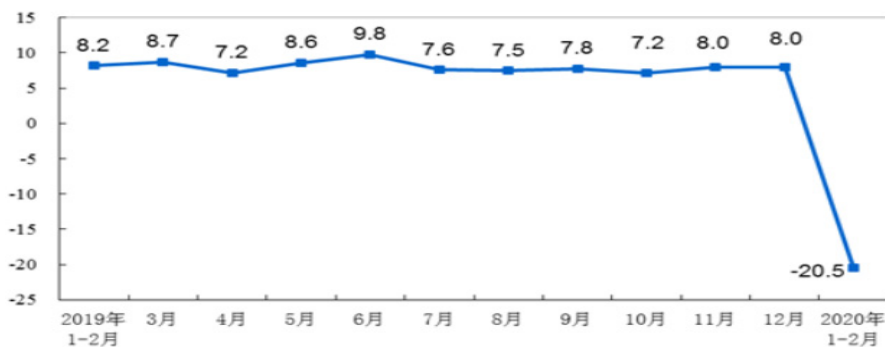
#### 가. 내구재 소비 둔화

■ 2020년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20.5% 하락한 5조 2,130억 위안을 기록함.<sup>10)</sup>

- 그중 도시에서의 소매 판매액은 20.7% 하락한 4조 4,881억 위안이며, 농촌 소매 판매액은 19% 하락한 7,249억을 기록함.

그림 12. 중국의 소매 판매액 증감률

(단위: %)



자료: 国家统计局(2020. 3. 16), 「2020년1—2月份社会消费品零售总额下20.5%」.

- 소비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요식업 판매는 43.1% 하락한 4,194억 위안, 상품 판매는 동기대비 17.6% 하락한 4조 7,936억 위안을 기록함.

10) 소매 판매액 감소율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율을 의미함.

- 상품 품목별 판매액 감소율은 금·은·보석류가 -41.7%로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류, 가구류, 의류·방직품류, 건축·장식 자재류, 가전·음향기기류 등이 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함(표 5 참고).

표 5. 2020년 1~2월 중국의 주요 소비재 판매 현황

품목 구분	판매액(억 위안)	동기대비 증감률(%)
기준 이상 기업의 상품 소매	16,022	-22.2
식량·식품류	2,591	9.7
음료류	308	3.1
담배·주류	600	-15.7
의류·방직품류	1,534	-30.9
화장품류	387	-14.1
금·은·보석류	277	-41.1
일용품류	837	-6.6
가전·음향기기류	805	-30.0
약품류	781	0.2
문구류	393	-8.9
가구류	142	-33.5
통신기기류	665	-8.8
석유제품류	2,239	-26.2
자동차류	3,654	-37.0
건축·장식 자재류	152	-30.5

주: '기준 이상 기업의 상품 소매'는 연매출 500만 위안 이상 소매업체의 매출액을 집계한 수치.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의 1~2월의 자동차 판매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판매량은 196만 9,000대로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함.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월 자동차 판매량은 194만 1,000대로 전월대비 -27%, 전년동기대비 -18%로 감소하였고, 2월 판매량은 25만 대로, 전월대비 -85.4%, 동기대비 -78.7%로 감소함.<sup>11)</sup>
- 현대·기아 자동차의 경우 2월 기준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97.4% 하락한 1,007대, 95.6% 하락한 972대에 그치며 2003년 중국시장 진출 이후 최저치를 기록<sup>12)</sup>
- 자동차 판매는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자동차유통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하루 평균 자동차 판매량은 2월 1주 차 811대, 2주 차 4,101대, 3주 차 5,411대, 4주 차 1만 6,500대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sup>13)</sup>
-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20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최소 10% 감소하고, 2020년 연간 판매량은 전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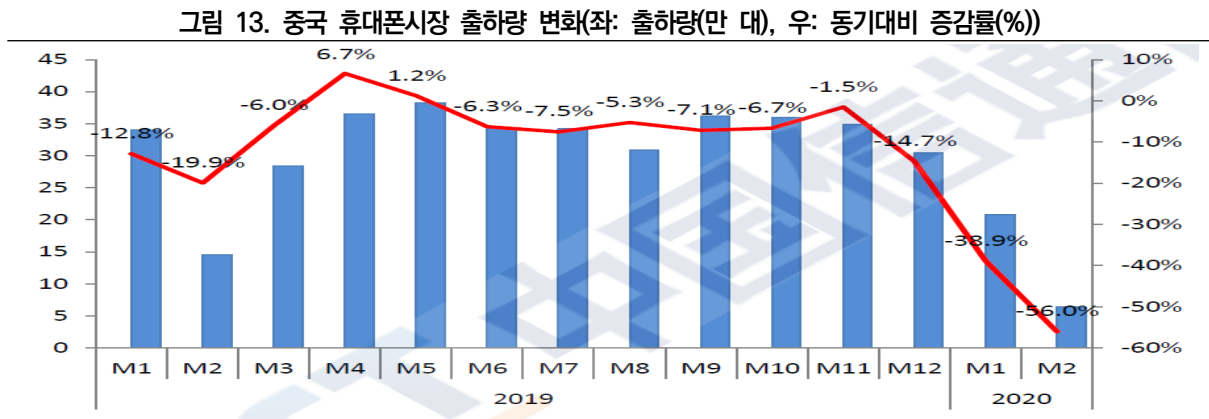
11) 『新浪财经』(2020. 3. 11), 「1-2월车市累计销量下降41.0% 乘联会调低全年预期」.

12) 『未来汽车日报』(2020. 3. 17), 「现代汽车2月在华销量暴跌97%, 创在华投产以来历史最低」.

13) 国家统计局(2020. 3. 16), 「海啸: 疫情对零售市场短期冲击大 消费长期向好趋势没有改变」.

■ 중국 내 휴대폰 판매업체가 영업을 중단하고 휴대폰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1~2월 휴대폰 출하량도 대폭 감소함.<sup>15)</sup>

- 2월 휴대폰 출하량은 동기대비 56% 감소한 638만 4,000대를 기록했고, 1~2월 누적 출하량은 동기대비 44% 감소한 2,719만 대로 나타남.



자료: 连讯社(2020. 3. 9), 「2月国内手机出货量638.4万部, 同比下降56%: 5G手机出货锐减一半」.

- 그중 1~2월 안드로이드폰 출하량은 2,390만 대, 아이폰은 280만 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아이폰의 2월 출하량은 동기대비 62% 감소, 전월대비 78% 감소함.<sup>16)</sup>

■ 2020년 1/4분기 중국의 휴대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4분기부터 감소폭이 줄어들어 하반기부터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자료: 金融界(2020. 2. 26), 「中金: 2020年中国智能手机市场出货量将下降6.3%至3.48亿部」.

- 하반기 소비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국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6.3% 감소한 3억 4,80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14) 4월 내 코로나19가 통제될 것이라는 전제. 『新浪汽车』(2020. 2. 21), 「2月上半月汽车销量暴跌92% 上半年预计下滑10%以上」.

15) 『连讯社』(2020. 3. 9), 「2月国内手机出货量638.4万部, 同比下降56%: 5G手机出货锐减一半」. 전년동기대비.

16) 『快科技』(2020. 3. 9), 「iPhone 2月份在中国市场销量不足50万部: 环比暴跌近8成」.

- 2019년 휴대폰 출하량이 2억 4,000만 대로 삼성에 이어 글로벌 순위 2위로 부상한 화웨이는 자사의 2020년 휴대폰 출하량이 전년에 비해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sup>17)</sup>

■ 그 밖에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주요 도시의 고급 브랜드들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사치품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 내 소비가 급감함.<sup>18)</sup>

- 버버리(Burberry)의 경우 방문객 수가 80% 감소했고, 중국 내 64개 매장 중 24곳을 폐쇄했으며, 40개 매장은 영업시간을 대폭 축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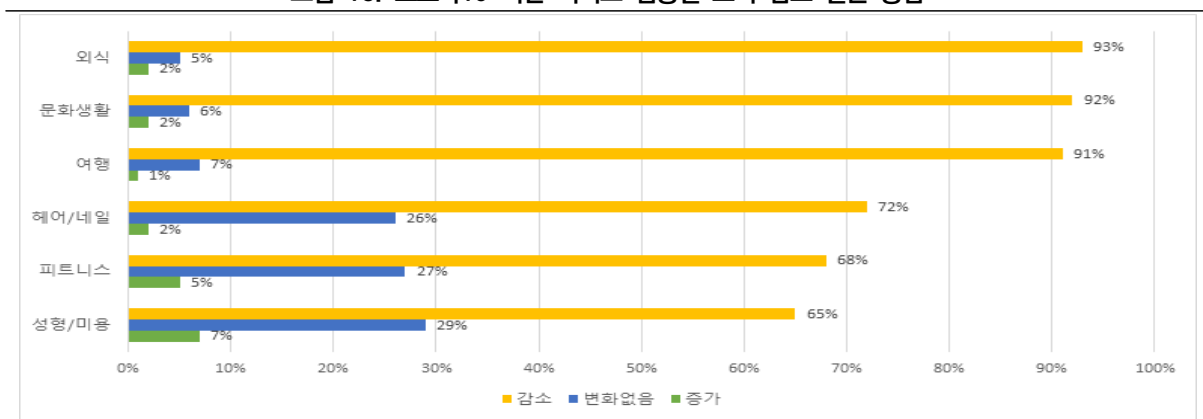
## 나. 서비스 소비 둔화

■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 분야는 3차 산업으로, 그중 오프라인 소비, 교통운수, 관광,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피해가 가장 큼.

- 중타이(中泰)증권은 1/4분기 서비스업 매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업종별로 각각 관광업 1조 2,000억 위안, 요식업 9,600억 위안, 교통운수 1,400억 위안, 영화 100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sup>19)</sup>
- 2020년 1/4분기에는 3차 산업의 성장률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3차 산업의 중국 전체 GDP 대비 비중이 2019년 기준 54%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영국계 시장조사업체 Kantar(凯度)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문화생활, 여행 분야의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남.<sup>20)</sup>

그림 15. 코로나19 기간 서비스 업종별 소비 감소 설문 응답



자료: Kantar(2020. 2), 「疫情之下, 各行各业的危与机」.

17) 『新浪VR』(2020. 3. 10), 「华为: 预计2020年手机出货量将下降约20%」.

18) Kantar(2020. 2), 「疫情之下, 各行各业的危与机」.

19) 『动点科技』(2020. 2. 2), 「中泰证券: 旅游业一季度收入下降或为 1.2 万亿占全年旅游收入的近2成」.

20) 설문조사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후베이(湖北)성을 포함한 중국 내 200개 지역의 주류 소비계층 1,000여 명을 표본대상으로, 실명으로 응답조사를 진행함.



■ 특히 관광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이 가장 큰 업종 중 하나로, 숙박, 여행사, 면세점, 항공, 철도 등 관련 업종에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됨.

-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로 1~2월 ‘일정기준이상 숙박업’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50% 하락함.<sup>21)</sup>
- 중국 문화관광부는 등록된 모든 관광기업의 경영활동 중단을 긴급 통지했고, 중국 내 대부분의 관광지를 폐쇄하면서 2020년 춘절 기간 관광업의 경제적 손실이 5,000억 위안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80여 개의 국가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도 급감하면서 한국, 일본, 태국 여행객 수가 전년동기대비 약 50% 감소함.
  - 숙박업, 면세점 등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운영시간을 축소하고 있으며, GDP 대비 관광업 비중이 17%에 달하는 윈난(云南)성의 경우 3만 개 이상의 숙박업소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함.
- 베이징시의 1/4분기 관광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4.7% 하락한 840억 위안, 관광객 수는 70% 감소한 4,40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sup>22)</sup>
  - 베이징시는 1월 24일부터 시 전역의 181개 관광지를 폐쇄하고 3,016개 여행사의 경영활동을 중단시켰으며, 1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상영업 중인 호텔 수는 50% 이하 수준임.
  - 춘절 기간 베이징 관광객 수는 동기대비 81.9% 감소한 146만 6,000명, 관광수입은 86.8% 하락한 10억 8,000만 위안을 기록함.
- 관광업의 회복은 낙관적으로 볼 때 7~8월, 또는 국경절이 있는 10월이 되어야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상반기에는 여행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관광객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sup>23)</sup>

■ 2019년 요식업이 중국 소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 중국 내 소비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13.1%에 달하는바, 1/4분기 소비에 큰 충격이 예상됨.<sup>24)</sup>

- 2020년 3월 현재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90% 이상 하락한 요식업체는 71%, 80~90% 하락한 업체는 12%로 추정되며, 고객 방문량은 동기대비 평균 91.5% 감소함.
- 코로나19 확산이 3개월 내에 모두 통제된다면 요식업의 2020년 한해 손실액은 1조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sup>25)</sup>
  - 2/4분기 요식업 매출이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3/4분기에 전년 수준을 회복하고 4/4분기에는 동기대비 증가세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

21) ‘일정기준 이상 숙박업 매출’은 연매출 200만 위안 이상 숙박업체의 매출을 집계한 수치임. 国家统计局(2020. 3. 16), 「蒿涛: 疫情对零售市场短期冲击大 消费长期向好趋势没有改变」.

22) 『人民网』(2020. 3. 11), 「北京关闭181家封闭式管理景区 暂停3016家旅行社经营活动」.

23) 『中国网』(2020. 3. 4), 「旅游业一季度或将“颗粒无收” 期待“后疫情”时代新格局」.

24) 『餐谋长聊餐饮』(2020. 3. 9), 「2020餐饮业受疫情影响行业分析与前景预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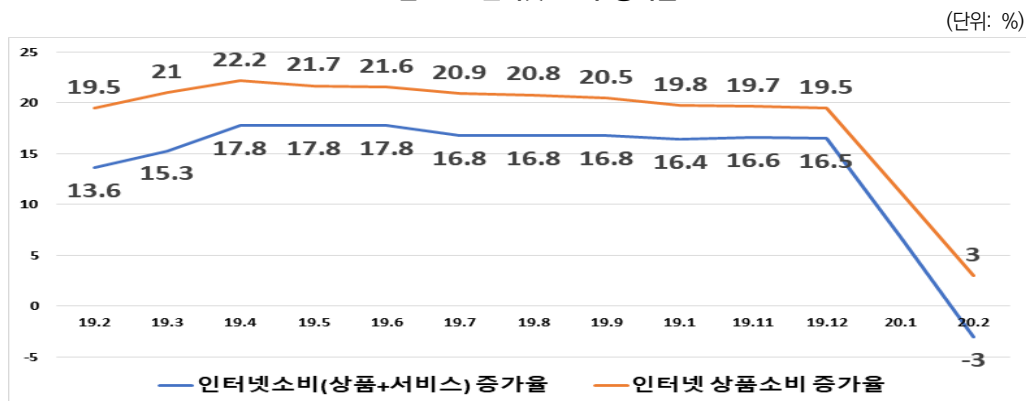
25) 『新华网』(2020. 3. 3), 「《新冠疫情下中国餐饮业发展现状与趋势报告》发布 疫情结束后将有补偿性消费增长期」.

## 다. 인터넷 소비 트렌드 변화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인터넷 상품 소비는 증가세

-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인구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온라인 소비로 대체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 오프라인 소비의 감소가 인터넷 소비로 전환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용이한 인터넷 접속환경 △편리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 이용 △ 효율적이고 값싼 유통시스템이며, 중국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sup>26)</sup>
- 중국 내 이동데이터 사용량은 2018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07.3% 증가한 553억 9,000만 기가바이트를 기록함.<sup>27)</sup>
- 2019년 6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8억 5,400명으로, 특히 모바일 이용자 수가 전체의 99.1%를 차지하는 8억 4,700명임.<sup>28)</sup>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2월 소비재 판매액과 인터넷 소비(상품+서비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0.5%, 3% 하락했으나, 인터넷 상품소비는 3% 증가한 1조 1,200억 위안을 기록<sup>29)</sup>
-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자가격리와 재택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신유통(新消費) 및 비대면 배달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소비가 증가
- 특히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필수품을 판매하는 유통채널일수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 인터넷 소비 증가율



주: 누적수치로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20. 3. 17).

26) Wei(2020), "Ten keys to beating back COVID-19 and the associated economic pandemic." Baldwin and Mauro ed.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s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27) 『中国网信网』(2019. 8. 30), 「CNNIC发布第44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http://www.cac.gov.cn/2019-08/30/c\\_1124939590.htm](http://www.cac.gov.cn/2019-08/30/c_1124939590.htm)(검색일: 2020. 3. 12).

28) 『中国网信网』(2019. 8. 30), 「CNNIC发布第44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http://www.cac.gov.cn/2019-08/30/c\\_1124939590.htm](http://www.cac.gov.cn/2019-08/30/c_1124939590.htm)(검색일: 2020. 3. 12).

29) 国家统计局(2020. 3. 16), 「2020年1—2月份社会消费品零售总额下降20.5%」,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3/t20200316\\_1732236.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3/t20200316_1732236.html)(검색일: 2020. 3. 17).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식품 및 의약품 구매가 급증했고, 모바일 오피스, 온라인 교육콘텐츠, 게임오락 등의 서비스 소비도 주목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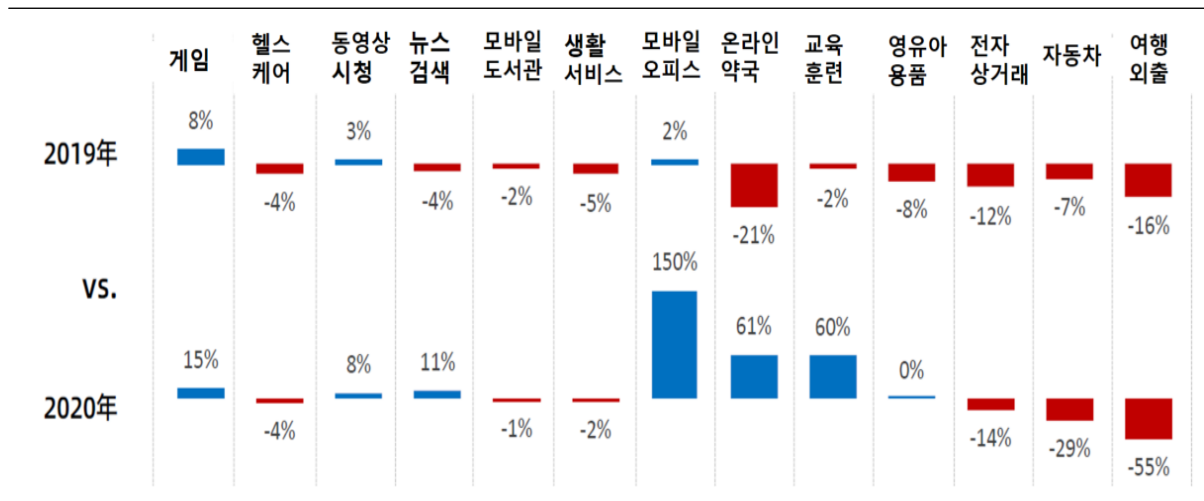
- 2020년 1~2월 식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식품 소비가 1월과 2월에 각각 26.4%, 7.5% 증가했고, 춘절 연휴 기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량도 전년동기대비 3~4배 증가
- 춘절 연휴 모바일앱 사용 증가율을 보면, 메신저 및 원격회의 등을 위한 모바일 오피스, 온라인 의약품 구매, 온라인 교육이 금년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각 150%, 61%, 60% 이상 증가함.

표 6. 코로나19로 주목받는 인터넷 소비 분야

분류	주요 내용
온라인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신선식품의 소비 증가</li> <li>· 춘절 연휴 동안 징둥다오자(京东到家)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70% 증가(1월 24일~2월 2일 쌀·기름·부식·육류, 레저 식품, 채소, 과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40%, 710%, 530%, 440%, 380% 증가)</li> <li>· 1월 27일 기준, 베이징 징커롱(京客隆)마트 배송주문은 전년동기대비 450% 이상 증가했으며, 1월 25~27일 3일간 신선식품의 주문량만 70만 kg</li> <li>· 12월 20일~1월 15일 기준, 핀둬둬(拼多多) 플랫폼에서 거래된 농식품 주문은 2.1억 건을 기록한 한편, 약 200종 이상의 제품이 천만 위안 이상의 판매액을 기록</li> <li>- 비처방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소비 확대</li> <li>· 1월 배달앱인 어러머(饿了么)를 통해 상하이에서 구매한 온라인 의약품 판매량은 전기대비 약 28% 증가</li> </ul>
원격근무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택근무 및 '3무 방식(비접촉방식)' 근무로 원격근무 시스템 확대</li> <li>· 원격근무 시스템 플랫폼 당딩(钉钉)은 원격근무 수행을 위한 생방송과 음성 화상회의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올 2월 초, 신규로 총 2만 대의 클라우드 서버를 확대하는 등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 중</li> <li>· 화웨이 클라우드 WeLink의 경우 설 이후 매일 신규 개통 기업 수가 평균 50%씩 늘어났고 WeLink 활용 화상회의가 12만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li> </ul>
온라인 교육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교령으로 많은 학교 및 학원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며 온라인 교육콘텐츠 산업 부상</li> <li>· 줌예방(作业帮)은 무료 라이브 방송강의를 제공한 지 이틀 만에 등록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위안푸다오(猿辅导)도 무료 라이브 방송강의를 제공한 당일 500만 명의 초중고생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li> <li>· 2020년 개학 1주 만에 교육 관련 App의 일평균 이용자는 1억 2,700만 명으로 예상</li> </ul>
오락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신문구독, 게임 등 콘텐츠 소비 확대</li> <li>· 망귀TV(芒果tv)는 모든 이용자에게 춘절 기간 동안 무료 VIP를 개방했으며, 회원은 전월대비 709% 증가</li> <li>· 아이치이(爱奇艺)는 무료영화 6편을 내놓아 가입자를 끌어모았고, 회원은 1,079% 증가</li> </ul>

자료: 산업연구원(2020. 2. 1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코트라 청두무역관(2020. 3. 6), 「코로나19, 중국에서 급부상 중인 '재택경제'에 주목하라」; 『吴晓波频道』(2020. 2. 20), 「非典成就电商, 但新冠肺炎还谈不上成就在线教育」, <https://www.chinainws.com/articles/375218203298.htm>(검색일: 2020. 3. 18).

그림 17. 2019~20년 춘절 기간 각 용도별 App 사용 증감률



주: 춘절 연휴 전후의 신규 App 사용 증가율 비교, 전자상거래 수치에 징둥·알리바바 산하 기업의 전자상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友盟+(2020. 2), 「疫期移动互联网行业发展动态分析」.

■ 온라인 상품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폭이 오프라인 소비의 둔화폭을 완전히 상쇄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상품 소비의 확대는 해당 플랫폼의 영업이익을 증가시켜 유통업계 전반의 부진을 다소 상쇄하였으나,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이윤 하락과 취업에 대한 완충은 매우 제한적<sup>30)</sup>
- 또한 수요 대비 물류 운송 서비스 업체의 수용량 한계,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의류·자동차·가전제품 등의 온라인 소비 감소로 전체 온라인 상품 소비의 증가율이 다소 낮다는 분석이 있음.<sup>31)</sup>
  - 2020년 1~2월 온라인 의류 구매는 전년동기대비 18.1% 감소
- 코로나19 기간의 신유통(新消費) 확대로 급증한 온라인 수요는 톱니바퀴 효과(ratchet effect)처럼 온라인 소비의 증가 추세가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sup>32)</sup>
- 2003년 사스(SARS) 사태 당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미비로 온라인 구매가능 품목이 한정적이었으나, 이후 인터넷 소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징둥, 알리바바, 텐센트 등 다양한 플랫폼이 급성장<sup>33)</sup>

30) 罗兰贝格管理咨询(2020. 2. 26), 「“新冠”疫情对零售商超行业的影响与思考」, <https://www.longsok.com/dt/2020/0226/55466.html>(검색일: 2020. 3. 18).  
 31) 友盟+(2020. 2), 「疫期移动互联网行业发展动态分析」; 国家统计局(2020. 3. 16), 「2020年1—2月份社会消费品零售总额下降20.5%」,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3/t20200316\\_1732236.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3/t20200316_1732236.html)(검색일: 2020. 3. 17).  
 32) 罗兰贝格管理咨询(2020. 2. 26), 「“新冠”疫情对零售商超行业的影响与思考」, <https://www.longsok.com/dt/2020/0226/55466.html>(검색일: 2020. 3. 18).  
 33) KOTRA(2019),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현황과 진출방안」, 19-071.

## 4. 중국정부의 대응

■ [중앙정부]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재정정책] 예산지출 구조를 조정하여 일반지출을 축소하고 방역자금의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과 경제부양 규모를 고려해 재정적자 규모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함.<sup>34)</sup>
- 최근까지 발표된 중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은 세금 감면 및 납부유예에 방점을 두고 있음.
  - 특히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산업재해, 의료)의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보험료(의료보험 포함) 부담금에 대해서만 약 6,600억 위안을 지원할 방침
  -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특별 세금정책’을 별도로 마련해 △ 방역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 방역 관련 수입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 등을 추진

표 7.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정책	발표일	규모	비고
지방정부의 재정 보유율(finance retention rate) 확대	3월 4일	-	· 현재 지방정부 재정보유율에서 5%p 확대 · 현금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급 확대	3월 5일	6조 2,800억 위안	·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총 이전지급 액수는 6조 2,800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동기대비 1조 2,600억 위안(약 200조 원) 증가
부가가치세 감면	2월 28일	-	· 후베이성의 영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후베이 외 지역에서는 3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3%에서 1%로 인하
사회보험료 인하	2월 20일	5,100억 위안	· 양로, 실업, 산업재해 항목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대상은 후베이성 내 기업과 후베이 지역 외 중소기업, 2~6월), 또는 50% 인하(후베이 외 지역의 대기업, 2~4월) · 이와 함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의료보험료 인하	2월 21일	1,500억 위안	·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정부의 경우 6개월 이상 기업의 의료보험료 부담액을 50% 인하 가능 · 그 외 지방정부는 재정 여력과 현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2~6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특혜 세금정책	2월 11일	-	·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교통, 요식업 및 배송 분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1월 1일부터) · 코로나19의 통제를 위한 수입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1~3월)
지방채 쿠폰 증가	2월 11일	8,480억 위안	· 8,480억 위안 규모의 신규 지방채 할당 · 2020년 들어 최근까지 총 1조 8,5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를 조기 할당*

주: \* 보통 지방채권(일반채권, 특수목적 채권)의 연간 쿠폰은 3월 양회에서 승인한 이후 각 지방정부에 할당되고, 지방정부에서 발행함. 2020년에는 양회 개최 전이지만 지방채를 조기 할당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함. 「国务院常务会议：提前下达2020年专项债额度 未涉及“提前发行”的安排」(2019. 9. 5), 『21世纪经济报道』, <https://bond.hexun.com/2019-09-05/198449927.html>; 「中 지방정부, 코로나19에 이른 채권발행 열풍」(2020. 3. 4),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4119>(모든 자료 검색일: 2020. 3. 23).  
자료: 정지현 외(2020),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p. 7.

34) KIEP 북경사무소(2020), 「[3월 1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 [통화정책] 실물경제의 회복 지원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되, 금융시장의 합리적인 유동성 구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방역 중점지역과 의약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sup>35)</sup>
- 중국 인민은행은 2월 초 공개시장 운영방식을 통해 약 1조 7,000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했고, 3월 추가적으로 일부 은행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5,500억 위안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중국정부의 통화정책은 특히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한 대출이자율의 하향 조정, 신용대출과 중장기 대출의 확대 등을 중점 추진 중
  -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기업, 농업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해 8,000억 위안 규모의 채용자 지원을 추진
  - 또한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Medium-term lending facility rate), 1년 및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농업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자 이자율 등을 5~25bp 인하

표 8.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통화정책

정책	발표일	규모	비고
유동성 공급	02월 03일	1조 2,000억 위안	· 공개시장운영(OMO), 만료
	02월 04일	5,000억 위안	· 공개시장운영(OMO), 만료
구조적 통화 지원	02월 07일	3,000억 위안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채용자 이자율을 1.28%로 인하
	02월 26일	5,000억 위안	· 농업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재대출(Relending), 재할인
정책성 은행 대출	-	3,500억 위안	· 중국의 3대 정책성 은행인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 중국농업개발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에 대한 특별 신용 할당(Special credit quota)
지급준비율(RRR) 인하	03월 16일	50~150bps	· 대출을 포함한 재무목표를 달성한 은행의 경우 50~150bps 인하, 시중은행(joint-stock commercial banks)에 대해 추가적으로 100bps 인하를 통해 5,500억 위안 규모의 장기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02월 17일	10bp	·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Medium-term lending facility rate) 인하
	02월 20일	10bp	·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02월 20일	5bp	·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02월 26일	25bp	· 농업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자(refinancing) 이자율을 2.75%에서 2.5%로 인하
대출금 상환 연장	03월 01일	-	· 대상: 후베이성 내 전체 기업과 후베이성 외 지역의 중소기업 · 1월 25일~6월 30일 사이의 대출금 상환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
서비스 수수료 면제	03월 03일	1.64억 위안	· 3~6월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 및 개인의 신용 기록(credit report) 조회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면제
Anti-Coronavirus bonds	02월 06일	40억 위안	· 중국수출입은행, 1년 만기 쿠폰 금리 1.7036%
	02월 05일	50억 위안	· 중국농업개발은행(ADBC), 1년 만기 쿠폰 금리 1.8833%
	계획	80억 위안	· 중국국가개발은행(CDB)

자료: 정지현 외(2020),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pp. 7~8; "China COVID-19 policy weekly update"(2020. 3. 16), IHS Markit, p. 5.

35) KIEP 북경사무소(2020), 「[3월 1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 [지방정부] 각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기조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 대출 상환부담 완화 △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임.<sup>36)</sup>
- 중국 31개 성·시(省·市)의 지방정부가 발표한 지원조치는 지역별로 지원범위와 기준이 상이하나, 대체로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구체적으로 △ 사회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감면 또는 3~6개월의 납부 유예 △ 긴급대출, 대출기간 조정,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 국유기업 소유의 영업용 부동산을 임차한 중소기업에 대해 1~3개월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
  -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피해규모가 가장 큰 후베이성 정부는 방역물자 생산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10% 이상 인하했고, 31개 성·시 중 사회보험료 납부를 최장기간 유예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조치를 제시
  -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서비스 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sup>37)</sup> 두 지역에서는 △ 관광·숙박·요식업 △ 문화·오락 등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 베이징시 정부는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다른 업종보다 4개월 더 유예해 주었고, 상하이시 정부는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별도로 발표

표 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지역의 기업 지원정책

지역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후베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방역물자 관련 기업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집중 세수 지원</li> <li>- 기업의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일부 감면 또는 면제, 최장 3개월 납부 유예</li> <li>- 사회보험료 중 양로·실업·산재 보험료를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납부 유예 가능</li> <li>· [대출 상환부담 완화] 방역물자 중점 생산업체에 대해 기존 대출금리 수준에서 10% 이상 인하 추진</li> <li>-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맹목적인 대출 상황 압박 및 대출 중단 불가</li> <li>· [임대료 감면] 국유기업 소유의 영업용 부동산 임차 중소기업은 임대료 3개월 면제, 6개월은 50% 납부</li> </ul>
광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 유예] 양로·의료·실업 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의 납부기한을 코로나19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li> <li>· [대출 상환부담 완화] 대출 상환 연기, 대출금리 인하, 대출이자 감면 추진, 또한 금융서비스 창구를 개설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li> <li>· [임대료 감면] 국유기업 소유의 영업용 부동산을 임차한 민영기업은 임대료 1개월 면제, 이후 2개월은 50% 납부</li> </ul>
장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감면] 월매출액 10만 위안 이하, 분기매출 30만 위안 이하의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면제</li> </ul>
산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감면 및 납세 유예] 중소기업은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중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6개월까지 납세 유예 가능</li> <li>· [대출 상환부담 완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이 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은행은 긴급대출, 대출기간 조정,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추진</li> <li>· [임대료 감면] 국유기업 소유의 영업용 부동산 임차 중소기업은 1~3개월 임대료 면제 또는 50%만 납부</li> </ul>
상하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 유예] 최장 3개월 납세 유예</li> <li>· [대출 상환부담 완화] △관광·숙박·요식업 △도소매 △교통운수 △문화오락 △전시 등 영향이 큰 서비스 업종에 대한 대출 상환부담 집중 완화</li> <li>- 일정기간 기업의 대출이자 감면 추진, 은행이 자체적으로 유예기간을 정해 기업의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함.</li> <li>- 기업이 90일 또는 60일 이상 연체한 대출을 부실대출로 보는 강제적 요구를 적용하지 않음.</li> <li>· [임대료 감면] 상하이시 산하 국유기업 소유 부동산을 임차한 중소기업에 대해 2월과 3월 임대료 면제</li> <li>- 민간소유 영업용 부동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면제해줄 경우, 해당 임대인은 부동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감면 가능</li> </ul>

36) 김주혜(2020), 「중국 각 지방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조치 발표」, KIEP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

37) 2018년 기준 GRDP 대비 3차 산업 비중은 베이징 80%, 상하이 70% 이상(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임.

지역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베이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 유예] 중소기업은 최대 3개월까지 세금납부 유예 가능, 사회보험료의 경우 2020년 1·2월 미납액의 납부 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li> <li>- 특히 △관광·숙박·요식업 △도소매 △교통운수 △문화오락 △전시 등 영향이 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 납부를 7월 말까지로 연장</li> <li>· [대출 상환부담 완화] 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지금을 정해진 기한보다 먼저 회수할 수 없고, 대출 중단, 대출 금 지급 연기를 할 수 없음.</li> <li>-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상환을 연기, 대출기간 연장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li> <li>· [임대료 감면] 시 산하 국유기업 소유의 영업용 부동산을 임차한 중소기업에 2월 임대료 면제</li> <li>- 기타 민간소유 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줄 경우 정부가 일정액의 보조금 지급</li> </ul>

자료: 김주혜(2020), 「중국 각 지방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조치 발표」, KIEP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

## 5. 시사점

■ 중국의 1~2월 생산·소비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큰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소강 상태에 진입하면서 조업 재개, 내수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주요 공업 지역인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조업 재개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의 사회 활동 수준도 3월 초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1~2월의 소비 둔화가 새로운 온라인 소비 트렌드, 중국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등에 의하여 2/4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존재함.

■ 중국의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중국의 생산 수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2020년 1~2월 수출액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조업중단 일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한 2,92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함.
- 하지만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일본 등 중국의 주요 수출국에도 확산되면서 금년 중국의 수출 전망은 또 다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
- 중국의 1~2월 전체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EU(15.5%)와 미국(14.7%)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8.4%, 27.7% 감소했는데,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해외수요 감소가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중국 내에서 1~2월에 발생한 경제적 충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 내부 충격에 의한 것이지만, 3월부터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방압력이 더 커지고 있음.

- 생산 및 소비 둔화로 인하여 중국 내 몇몇 금융기관들은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고 있음.



- 향후 개최될 중앙양회에서 중국정부는 대규모 양적완화, 인프라 투자정책을 통해 경기하방 압력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이 향후 한·중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표 10. 중국 내 각 금융기관의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0년 연간
국태군안증권 (国泰君安证券)	1.0	5.5	7.3	7.3	5.3
서은증권(瑞银证券)	2.0	4.3	6.0	6.2	4.8(5.4)
Standard Chartered	4.2	6.1	6.3	6.4	4(5.5)
Statista	2.4	5.6	-	-	5

주: 20년도 연간은 연성장률을 의미하며, ( ) 안의 숫자는 2020년 3월 이전에 전망한 성장률임.  
자료: 『国泰君安证券』(2020. 3. 10), 『2020全球经济U型复苏、衰退还是危机』.

■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대중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경영난 가중에 따라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

- 중국의 내부 충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하여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국내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을 위한 중국정부와의 정책공조 및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2019년 한국의 중간재 수출 중 중국 의존도가 28.2%를 기록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 회복속도가 더욱 늦춰진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또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중장기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여행업, 운송업에 대한 수요 충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안정 정책, 기업지원 정책이 필요함.
- 내구재 소비와 달리 방역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감소폭(여행 취소, 외식 감소 등)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한 실물소비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에 주목하고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 한국은 인터넷 접속이 빠르고 편리하며, 온라인 배송 등 물류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에 온라인 소비 활성화를 통해 오프라인 소비 감소를 완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중국 내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에 의한 온라인 소비 증가가 실물소비 충격을 완화하는 점을 통해 볼 때, 한국 또한 국내 온라인 소비시장을 육성하고,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새로운 통로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중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활용하여 국내에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창출하고, 양국간의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통관 간소화, 제도 개선 등의 정책 수립이 필요함. KIEP